

창단 첫 최하위 탈출...역대 최고 성적 달성

AI PEPPERS 시페퍼스 2025-2026 결산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저축은행 시페퍼스의 2025-2026시즌 V리그가 막을 내렸다. 시페퍼스는 창단 다섯 번째 시즌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약속했다. 전 현대건설 소속 베테랑 아웃사이드 히터 고예림을 FA로 영입하며 수비를 보강했고, 외국인 선수 조이 웨더링턴과 아시아쿼터 시마무라 하루오 등을 데려오면서 전반적인 전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구단 역대 최다승과 승점, 창단 첫 최하위 탈출 등 굵직한 기록들을 써내려갔다. 비록 올 시즌 목표로 삼았던 승률 50% 달성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전 시즌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창단 이래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시페퍼스의 올 시즌에 대해 살펴본다.

구단 역대 최다승·승점 금자탑...리그 6위로 마감 리시브 효율 21.14%로 7위...서브 강화 보완점도

△창단 첫 최하위 탈출...다양한 신기록 '금자탑'
올 시즌 시페퍼스는 역대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 16승 20패 승점 47점으로 리그 6위를 기록하며 구단 역대 최다승리와 최다승점을 경신했고, 최초로 리그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다. 2021-2022시즌(3승 28패 승점 11·리그 7위), 2022-2023시즌(5승 31패 승점 14·리그 7위), 2023-2024시즌(5승 31패 승점 17·리그 7위), 2024-2025시즌(11승 25패 승점 35·리그 7위)과는 확연히 다른 성과다. 새역사 작성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올해 1라운드에서는 4승 2패로 깜짝 활약을 펼치면서 리그 공동 1위에도 자리했다. 하지만 2라운드(2승 4패)부터 하락세를 걸었다. 3라운드 1승 5패, 4라운드 2승 4패를 기록하면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절치부심 끝에 들인 5라운드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첫 경기 흥국생명전 패배 이후 '강화' 현대건설을 맞아 웃음으로 돌아왔고, 리그 1위 한국도로공사도 승



15일 광주페퍼스타디움(영주체육관)에서 열린 정관장 배구단과의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6라운드 최종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0으로 승리한 시페퍼스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AI페퍼스

점 3점을 따내면서 완파했다. 리그 선두를 다투는 팀을 연달아 제압했다는 점에서 확실한 상승세를 그렸다.
이후 5라운드 다섯 번째 경기에서는 기업은행을 잡고 12승 17패 승점 36점을 기록, 구단 역대 최다승과 승점 기록 모두를 갈아치웠다.
직후 경기에서는 정관장까지 잡아내면서 창단 이후 첫 최하위 탈출을 확정짓기도 했다.
6라운드에서 연일 기록을 재경신하던 시페퍼스는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도 정관장을 완파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는 창단 5년차를 맞아 전력 보강에 힘을 쓴 것이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시페퍼스는 비시즌 기간 전 현대건설 소속 베테랑 아웃사이드 히터 고예림을 FA로 영입하며 수비 강화에 나섰다. 이어 새로운 외국인 선수로 미국 출신의 아웃사이드 히터 조이 웨더링턴을 영입했다. 아시아쿼터 드래프트에서는 1순위로 스테파니 와일러를 지명했으나, 부상으

로 시즌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빠른 결단을 통해 전 일본 국가대표 미들블로커 시마무라 하루오를 지명했다. 조이는 리그 득점 4위(880점), 공격종합 2위(공격성공률 47.25%) 등으로 모든 공격지표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시마무라 역시 득점 10위(431점), 속공·시간차·이동 2위 등을 차지하며 리그를 휩쓸었다. 고예림 역시 주장을 맡으면서 팀의 안정감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 시페퍼스는 올 시즌 다양한 새역사를 작성하면서 앞으로의 밝은 전망을 그렸다.
△서브·리시브 한계 노출...범실 최소화 등 과제
시페퍼스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들은 명확하다.
먼저 창단 이후 꾸준하게 약점으로 꼽혔던 리시브다. 올 시즌 리시브 리그 7위(시도 2800회·정확 759회·리시브효율 21.14%)를 기록, 배구의 기본이 되는 수비에서 여전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브 또한 6위(시도 3001회·성공 137회·세트당 평균 1.007회)로 취약했다. 리시브·서브에서 흔들리다 보니 시즌 중간 연패가 길어졌다.
범실 역시 670개로 정관장(726개)에 이어 가장 많았다. AI페퍼스가 다음 시즌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제들을 풀어내야 한다.
장소연 감독은 올 시즌을 돌아보며 "시즌을 마칠 때면 항상 아쉬웠던 점들이 떠오른다. 팀적으로 보면 서브와 리시브

가장 많이 성장했다. 그간 부상으로 풀 시즌을 치르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달랐다. 철저한 몸 관리로 36경기 모두 출전하면서 주전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중간 연차인 세터 박사람도 경험치를 많이 먹었다. 또 루키 정승민 등도 앞으로 팀에서 성장해나갈 선수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올 시즌 팀의 승리를 이끌었던 외국인 선수들에 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장 감독은 "시마무라는 물론 조이까지 모두 제 몫 이상을 해내며 활약했다. 앞으로도 계속 같이하고 싶은 마음이다.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면서 "다음 시즌은 더 발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제28회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에서 예매 단체전 준우승·사브르 단체전 3위를 기록한 전남도청 펜싱팀. (왼쪽부터) 전수인, 김지현, 박다은, 김태희, 한다현, 김은선, 손정민, 김형은, 박소형, 신재희, 김수민 코치.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전남도청 펜싱팀, 전국선수권대회 단체전 입상 맹활약

예매 단체전 준우승·사브르 단체전 3위 차지

전남도청 펜싱팀이 '제28회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예매·사브르 단체전에서 입상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16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남도청 펜싱팀은 최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 예매 단체전과 사브르 단체전에서 각각 준우승과 3위를 차지했다.
여일반 예매 단체전에 출전한 김형은·박소형·김태희·한다현은 8강에서 충청북도청을 43-36으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다. 이어 열린 광주 서구청과의 4강 경기에서는 상대 팀의 소극적 경기 운영에 따른 페널티로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

다. 마지막 결승에서는 부산시청을 만나 치열한 경기를 펼쳤지만 33-45로 아쉽게 패하며 준우승에 만족했다.
전남도청은 지난해 같은 대회 예매 단체전 준우승에 이어 올해도 준우승을 차지하며 2년 연속 결승에 오르는 성과를 올렸다.
같은 대회 사브르 단체전에서도 전남도청의 활약이 펼쳐졌다.
김지현·박다은·김은선·손정민이 팀을 이끈 전남도청은 8강전에서 익산시청을 상대로 초반부터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쳐 점수 차를 벌였고, 결국 45-32로 승리를 거두며 준결승에 이름을 올렸다. 준결승에서는 대전시청과 맞붙어 치열

한 승부를 펼쳤다. 하지만 상대의 빠른 공격과 경기 흐름을 끝내 뒤집지 못하며 32-45로 패, 최종 3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이병권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전남도청 펜싱팀이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전남도의 위상과 명예를 높여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하고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며 예매 단체 준우승과 사브르 단체 3위라는 값진 성과를 거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전남 펜싱이 전국 무대에서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 이준재·박재홍·손현호, 지역 체육 빛냈다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학교체육·생활체육·경기 부문 수상

광주 체육인들이 국내 체육 최고 권위의 대한체육회 체육상을 수상하며 지역 체육의 위상을 높였다.
16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제7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이준재 전 광주제중교장(현 효광중), 박재홍 광주 남구체육회 회장, 손현호(광주시청 역도팀)가 학교체육, 생활체육, 경기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준재 교장은 학교체육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그는 광주체육중학교 재직 당시 18종목 21종별 학교운동부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며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

상과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그 결과 전국 규모 대회에서 금메달 362개, 은메달 277개, 동메달 359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며 학교체육 발전에 공헌했다.
박재홍 남구체육회 회장은 생활체육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박 회장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지역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파크골프장 개장 등 생활체육 기반 확충에 기여하며 지역 체육발전에 앞장섰다.
손현호 선수에게는 경기 부문 장려상



이준재(왼쪽)와 손현호(광주시청 역도팀)가 각각 학교체육부문 우수상, 경기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국기원 명예 6단 올랐다

태권도 저변확대 공로 인정 "꿈나무 발굴·육성 지원 최선"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기원으로부터 명예 6단 단증을 받았다.
윤용철 광주시태권도 협회장은 지난 15일 광주 빛고래체육관에서 국기원장을 대신해 전갑수 시체육회장에게 명예 단증을 전달했다.
국기원은 태권도의 보급과 진흥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심사를 거쳐 명예 단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전갑수 시체육회장의 태권도 저변확대 공로를 기



전갑수 광주시체육회 회장(오른쪽 네 번째)이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기원으로부터 명예 6단 단증을 받았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리기 위해 명예 6단 단증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전갑수 시체육회장은 "이번 명예 단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전갑수 시체육회장의 태권도 저변확대 공로가 인정받아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며 "지역 태권도 꿈나무 발굴과 육성을 지원해 태권도가 대한민국 국기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